

일상 · 민생경제 회복, 시민 삶의 질 향상 '핵심'

지역 환경 적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정읍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 지역경제, 교육·복지,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 부단히 달려왔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의 국비 예산을 민선 7기가 시작한 2018년도보다 3천52억원 증가한 1조46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경기 침체 속 얼어붙은 투자 유치환경 속에서도 첨단과학산업단지 27개 기업, 식품특화 농공단지에 10개 기업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올해는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 새로운 도약과 성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핵심에 두고 정읍의 미래를 위해 굳건히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정읍만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 그리고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보 기반을 다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용산호 미르샘 분수



유진섭 정읍시장

올 예산 기준 사상 1조원 시대 맞아 내장산-내장문화관광-용산호 잇는 관광벨트 구축 효과 UP
올 첫 시행 '첫만남 이용권' 등 포용적 복지 행정력 집중키로 전자선 가속기 이용 축산악취 저감 기술개발 사업 차질없이 추진



용산호 낭만 모래시장 조감도



'불멸, 바람길' 제작소



수확기 벼 베기 일손 지원

계획이다.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및 낙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신정동과 제3산업단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와 복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의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층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첨단과학산업 단지에 27개 기업을 유치했고, 소성 식품특화 농공단지 10개 기업을 유치했다. 또 철강 구조물을 생산하는 (주)디에스엔피가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동물약품 기업인 케어사이드도 500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5년 연속 전라북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고,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1년 시군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2022년 본예산 기준 사상 첫 1조원 시대 개막

2018년 민선 7기 출범 당시 7,400억원이었던 예산이 41.2%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1조 465억원이다.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최대 재원을 확보한 것인데, 현안 사업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총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온 결실이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 구축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확충사업과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일대를 복합힐링 레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주력한다.

더불어 첨단산업단지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농촌 활성화 스마트팜, 주황야채 조성, 정향누리 상품권 400억원 발행,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정읍의 역사문화자원 교부까지 확대에 힘을 쏟을

▲시민 삶의 질 향상 · 정읍발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주력'

시는 단풍과 구절초 등 자연에 의존했던 가을 한철 관광도시를 탈피하고 체류형 생태·문화체험 1번지로 탈바꿈시켜 자주재원 확보 기반을 다지고 확보된 자주재원을 다시 문화·관광콘텐츠 확충에 재투자함으로써 정읍에 돈과 사람이 몰리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내장산을 기본 축으로 주변 관광 기반 시설인 내장산문화관광과 용산호 일대를 트라이앵글로 묶어 관광 기반 구축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읍 관광 활성화를 밀거름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핵심사업이 바로 '내장산과 내장산문화관광 그리고 용산호를 잇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기초단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당 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우수정책 인정받은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속도

내장산을 기본 축으로 일대 기반 시설인 용산호에 50억원을 들여 용이 승선하는 모습을 형상화할 조형물과 분수 물줄기 등의 부대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비 등 27억원을 투입해 숲길과 대나무길 데크길 등 총길이 3.5km의 수변 둘레길도 조성되며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 볼거리를 더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내장산 리조트 인접 유류 수변 공간에 5,700㎡ 규모의 낭만 모래시장과 생명의 나무 전망대, 감성 포토존 물빛무대, 뿌리데크 야간경관조명 등 친환경 생태 웰빙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일원에는 약 2.2km의 레일 위를 달리는 순환 열차와 레일비치를 조성하고, 시립박물관 주변, 정읍천과 부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범퍼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립박물관 옆 부지에 실내 4,700㎡, 야외 1,500㎡ 규모로 빛·소리·향기를 접목한 디지털 미디어아트 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24억원이 투입되는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숲속의 집(풀빌라 22형 4동/28형 3동) 7동과 산립체험모험 시설로 E-캠코스터(848m), 에코로이더(620m) 등이 들어선다.

▲일자리 활력과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 성장 견인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해소 전망 창구와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하며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 운전자급의 원활한 지원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3%의 이차보전금도 지원한다.

시는 기업의 낙후된 환경개선에도 힘을 쏟을



최첨단 스마트팜 식물공장



이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노인복지 실현



지구촌 어울마당

상으로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교육과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에도 민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RIX(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 지역의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원지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추진 중인 전자선 가속기 이용 축산악취 저감 기술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및 직거래 판매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민 편의 중심의 미래를 여는 도시공간 조성

시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이루고 시민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국도 1호선 용호교차로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당현마을과 체육공원 간 연결도로와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또 태인 IC 앞 삼거리와 영인면 은선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농소하모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해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10개소와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20개소 등 차세대 교통관리시스템인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 국비 포함 총 246억원을 들여 30년이상 오래된 4km 구간의 상수관로를 교체한다.

또한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영장파 체력인증센터를 겸비한 체육테레인 센터를 건립하고, 제3산업단지의 첨단산업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을 통해 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먼 단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민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전통주를 활용한 주황(酒香) 특화 거리 조성, 단계별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만으로 확대했다. 도내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교육비 부담도 줄였으며, 차상위·다문화가정·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예능 학원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초기 정착과 사회 초년생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과 구직지원금도 지원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과 총합한 돌봄망 구축을 위해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취약 계층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돌봄서비스도 추진한다.

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198억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연 10개의 목욕권도 지급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건설, 정읍농업 희망의 싹 틔운다!

시는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신산업을 개발해 정읍농업의 미래를 밝혀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건설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 각 분야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을 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침수 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용적 복지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시는 시민 모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출생 후 첫 통장을 개설하면 출생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